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 LA카운티교협 제4대 회장 강신권 목사, 이사장 김정한 목사 취임

엘에이카운티한인교회협의회(이하 엘에이카운티교협)는 지난 20일, 나성제일교회(담임 김성지 목사)에서 제4차 정기총회 및 대표회장, 이사장 이·취임식을 갖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강신권 목사, 신임 이사장으로 김정한 목사가 취임했다.



엘에이카운티교협 제4차 정기총회 및 대표회장, 이사장 이·취임식 기념촬영 ©기독일보

신임 대표회장 강신권 목사는 “엘에이카운티교협의 제4대 회기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데, 분과별 부서와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맡겨진 임기 동안 교협의 기반을 견고히 세우는데 헌신하고자 한다”며 “미국 전체에서 더 나아가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신임 이사장 김정한 목사는 “엘에이카운티교협을 통해 엘에이 지역 교회와 커뮤니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평화,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길 소망한다”며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천사의 도시인 엘에이에서 다시금 시작되길 소망한다”고 취임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엘리야 김 목사(엘에이카운티교협 부회장)의 사

회로 박정희 목사(OC한인여성 목사회 회장)의 기도에 이어 이호우 목사(OC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가 “웃으면 복이 와요”(잠14:3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호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한다”며 “기쁨과 웃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엘에이 카운티교협 신임원단을 축하하

고 격려해 달라”고 전했다.

예배에 이어진 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 강신권 목사는 직전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에게 공로패를, 신임이사장 김정한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엘에이카운티교협 고문 변호사로는 이승우 변호사(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장)와 박영선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크리스천 비전신문사 대표인 이정현 목사는 엘에이카운티교협으로부터 ‘자랑스런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이날 축사는 이승우 변호사와 이정현 목사(한기총미주총회 대표회장), 임덕순 장로(전 미주복음방송 사장)가 전했다. 이어 최학량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진건호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총회는 흥영환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 바이든 지지율, 미 흑인 개신교인 1년새 92→65% ‘뚝’

### 미국 퓨리서치센터 보고서 발표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평가 긍정률이 흑인 개신교인 사이에서 1년새 30% 가까이 하락했다.

퓨리서치는 올해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성인 5,1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가운데 흑인 개신교인 중 65%가 바이든의 직무수행을 지지해, 2021년 3월에 보고된 92%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

퓨리서치 보좌관 저스틴 노티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가장 충성된 지지층인 흑인 개신교인과 무신앙인 - 두 집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2020년 대선에서 흑인 개신교인은 10명 중 9명(91%), 무신앙인은 10명 중 7명(71%)이 바이든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역대 두 번째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은 가톨릭 교인들 사이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

미국인 가톨릭 신자 중 46%가 “바이든의 직무수행을 지지

한다”고 답해 2021년 3월 보도된 56%보다 낮아졌다. 반면, 히스패닉계 가톨릭 신자들은 백인 신자들보다 바이든의 직무수행을 더 높이 평가했다.

또 백인 복음주의자 중 14%가 바이든의 직무 성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3월 22%에서 감소한 수치다.

바이든에 대한 백인 개신교인의 지지율도 지난해 3월 40%에서 올해 1월 31%로 떨어졌다.

종교를 가진 응답자 중 흑인 개신교인은 35%가 “바이든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

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49%)은 “너무 이르다”라며 판단을 유보했고, 14%는 ‘대통령으로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백인 복음주의자 그룹은 7%만이 ‘바이든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한 반면, 78%는 ‘실패한다’, 15%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고 답했다.

지난해 퓨리서치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영향력을 얻을 종교 집단으로 ‘흑인 개신교인’과 ‘흑인 복음주의자’ 그룹을 꼽았다.

두 그룹 모두 55%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영향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으며, 흑인 개신교인 중 4%, 흑인 복음주의자 중 5%만이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1월 말 바이든이 사상 첫 흑인 여성을 지명할 것이라고 약속할 당시에 실시됐다.

김유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 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http://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러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뱅크러시**

뱅크러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녀는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파지기가 이루어지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http://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사는...**

-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 책임**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받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 때든지 마동환 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공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마동환 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따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 실력** 마동환 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동환 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현) 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발명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전) Good Hands Organization 이사장

#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47대 회장에 이영수 장로 취임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47대 회장으로 이영수 장로가 취임했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이하 남가주 장로협)는 지난 27일,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박일영 목사)에서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역 교계 연합과 부흥을 위해 힘을 결집했다.

취임사를 전한 이영수 장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겪고 있는 위기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보고 남가주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길 소망한다”며 “인류의 소망, 교회의 소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남가주 장로님들과 함께 이웃을 살피는 장로협의회,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장로협의회, 한국 교회에 희망을 주고,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남가주 장로협의회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47대 회장 이.취임식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 진상화 장로도 이날 축사를 보내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에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당부했다. 진상화 장로는 “모든 교회가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두 단체가 상호 협력하며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자”며 한

국에서 열리는 42차 정기 총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오승홍 장로의 사회로 최형호 장로가 기도한 후, 정우성 목사(남가주광영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대하 14: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진영 교수의 ‘축복하리라’, 남가주장로성가단중창단의 ‘은혜’ 특별 찬양에 이어 LA교협 회장 강신권 목사, 한기총 미주총회장 이정현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 진상화 장로를 대신해 증경회장 하기연 장로가 직전회장인 정도영 장로에게 공로패를, 신임 회장인 이영수 장로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영수 장로 역시 정도영 장로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하형숙 권사에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동욱 기자

## OC목사회 신임 회장 박용일 목사 “성경적 가치 회복해야”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제44대 이.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목사회는 지난 20일 남가주 프라미스교회에서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지역 목회자들의 연합과 목회 지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박용일 목사는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반 성경적이고 세속적인 세계관에 맞서 성경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렌지카운티목사회는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이날 예배는 박정기 목사의 사회로 손태정 목사의 기도 후 신원규 목사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왕상 19: 9-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원규 목사는 “엘리아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이세벨의 소리에 집중할 때, 그는 담대히 외치지 못하고 움츠러들게 됐다”며 “복음을 전할 때 맞이하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 주최, 남가주 지역 통큰통독세미나 개강

말씀이 삶이 되는 **통큰통독 일독학교**

2022 상반기 미주 16주과정

내용: 90일 동안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고 일독  
대상: 성경 일독을 원하는 모든 성도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16주 기간동안 함께 성경을 일독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며,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쉬지 않고 16주 성경 일독학교를 진행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 119:28)

LA 27기 화 오전반	OC 17기 수 저녁반	OC 17기 목 오전반	LA 27기 토 오전반
--------------	--------------	--------------	--------------

에스라 성경통독사역원이 주최하는 통큰통독세미나가 2022상반기 미주 16주 과정이 오는 3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성경 일독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통큰통독세미나는 90일 동안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고 성경을 한번 완독하게 된다.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은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

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라며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며,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미나는 줌 온라인 라이브 강의로 진행되며 등록비는 150달러다.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 한국 헤민병원 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마감일 3월 30일

<b>검진내용</b>	♣ CT 촬영(뇌, 폐 선택)	♣ 수면 대장내시경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수면 위내시경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골밀도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환율변동)

\$100 쿠폰구입  
\$28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종합검진센터 **이성수** 소장

자세한 내용은 **213.668.4781** 로 문의해 주세요.

# OC 지역 기관 · 단체장 초청 조찬 기도회 개최

제8차 오렌지카운티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 이하 OC 교협)와 OC 장로협의회(회장 김생수 장로) 공동 주최로 지난 26일,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 모인 120여 명의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계, 정계, 각 단체 지도자들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를 위해 ▲오렌지카운티 지역 각 사회 봉사 단체를 위해 ▲3월 9일에 실시되는 조국 대한민국 대선을 위해 기도했다. 또 ▲차세대의 성공과 믿음의 계승을 위해 ▲OC 교협과 목사회, 장로 협의회, 전도회 연합회, 각 선교 기관 등 교계 사역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신학교와 교육 기관을 위해 ▲한인 정치



제8차 오렌지카운티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기독일보

인들의 정치력 향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회에 앞서 심상은 목사

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한기홍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김생수 장로(OC 장로협의회 회장)가

기도한 후 신원규 목사(OC 교협 이사장)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엡 5:16-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기도회는 윤성원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환영사를 전한 한기홍 목사는 “기도하는 공동체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영적인 타락이 갈수록 심화되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과 부흥을 간구하자”고 전했다.

설교를 전한 신원규 목사는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한 해를 살아가자”며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아끼며,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발하자”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 월드쉐어 USA “올해 사순절 금식은 나눔 금식으로 생명 살려요”

## 아이티, 수리남 극빈아동 및 고아 돕기 캠페인 전개

국제 구호 기관인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가 사순절을 맞아 “사순절 금식을 나눔의 금식으로!”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순절 나눔 금식 캠페인은 사순절 기간 금식하는 한 끼 식사 비용을 헌금해 영혼을 살리는 빵 나누기를 함께 진행하자는 의미로 월드쉐어 USA가 매년 실시하는 캠페인이다.

사순절 캠페인은 교회와 개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순절 기간에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금식한 비용(3달러 x 40일, 120달러)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게 된다. 이번에 모금되는 금액은 빈민국인 아이티와 수리남의 아동들과 가정, 그리고 LA지역 노숙자들의 식사 제공과 복

음 선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는 “사순절이 되면 교회와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혜와 경건의 깊이를 더하고, 개인의 금식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의미가 담겨있어 벌써부터 많은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아이티의 아동들과 수리남의 고아들을 섬기는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고 참여를 호소했다.

강 목사는 이어 “지난해 사순절 나눔의 금식 캠페인에 여러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셨다. 이를 통해 아이티 아동들을 복음과 빵으로 섬기고 노숙자들을 섬길 수 있어서 대단

히 감사했다”며 “올해도 아이티와 수리남 어린이들 400여명에게 복음과 빵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후원비는 부활절 잔치에서 수리남의 마이클 목사와 과 아이티의 다니엘 목사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수리남의 군중 목사이자 루터교회를 목회하는 마이클 목사는 고아원 사역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 수리남의 수도 파라마리보에서 다수의 고아원들을 돌보고 있다. 아이티에서 학교를 운영하며 교회를 담임하는 다니엘 목사는 낙후된 지역에서 신실하게 아동을 돌보는 헌신된 목회자다.

사순절 나눔 금식 캠페인 참여와 자세한 문은 전화 323-578-7933, 카카오톡 ID : Chapkang 1, 이메일 chap1207@hotmail.com으로 하면 된다.

목사님! 성도님!  
2022년 사순절은 나눔의 영성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닮은 나눔으로 나 자신의 영혼도 살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영혼도 살리는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 사순절 개요 시작일: 3월 2일 ~ 종료일: 4월 16일  
제 수요일 성 금요일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수리남), 조성환목사(장로교), 김동원목사(장로교), 송정원목사(장로교), 김준원목사(장로교), 신원규목사(장로교), 윤성원목사(장로교), 김민석목사(장로교), 김민석목사(장로교), 김민석목사(장로교)

책의 특징: 목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20/권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울거리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원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책요리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광공예의 책요리명을 받들어 드립니다.

기독교서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 우크라이나(Ukraine)를 도와주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를 받고 몇 일간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민과 기도 끝에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키미치(Vasily Khimich)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사역하는 오랜 친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군중 목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키미치 소령이 우크라이나 책임장교였습니다. 당시 제가 한국군중목사로서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 저(강태광 군중목사)와 키미치 소령(Vasily Khimich)은 국제기독교인회(AMCF: Association of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 활동을 통해 동역해 친구였습니다. 현재 전역후, 키예프에서 군중 목사를 후원하고 전사자 유가족들을 섬기는 키미치가 며칠 전에 전쟁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의 편지로 가슴앓이하다가 우크라이를 돕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의 편지에 의하면 키미치는 전쟁 중인 키예프에서 민간인을 도우며 현역군중목사들을 위한 기도와 지원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시민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도와주세요! 그가 보낸 사진 몇장을 첨부합니다.

- 여러분의 심부름꾼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올림



[기독일보 텍사스지사 창간 인터뷰 5 - 어스틴한인장로교회 김준섭 목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산책’에 첫 담임 목회 비전을 담아”

미주 기독일보는 텍사스 지사 창립을 맞아 휴스턴, 오스틴, 달라스 등 텍사스 지역 주요 한인 목회자들의 인터뷰를 연재한다. 다섯 번째 순서로 어스틴한인장로교회 담임 김준섭 목사와의 인터뷰를 싣는다. 1973년 설립된 어스틴한인장로교회는 50여 년의 역사 동안 오스틴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교회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해 12월21일 부임해 목회 1년 차를 맞고 있는 김목사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홍신대 신대원을 거쳐 남아공 프리토리아 대학교에서 신학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쳤다. 김목사는 ‘예수 산책’이라는 분명한 목회철학을 갖고, 말씀헌원을 통한 전교인 제자화 및 선교적 교회로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김준섭 담임 목사 ©기독일보

-오랜 역사를 가진 한인교회를 첫 담임 목회자로 맡았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데다 가장 큰 한인교회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먼저 어스틴한인장로교회나 오스틴 지역의 목회적 환경을 설명해달라.

어스틴한인장로교회는 48년 된 전통있는 교회다. 담임으로 부임한 이후 성도들을 만났을 때 장로님들부터 평신도까지 기본적으로 신앙이 탄탄한 것을 느꼈다. 교회의 역사도 오래됐고 또 오스틴에서는 교세가 있는 교회이다 보니 긍정적 면에서의 자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잠재력이 큰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오스틴 지역은 꾸준히 한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한인목회의 필요성과 그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곳이다. 또 한인들의 직종들을 보면 자영업보다는 전문직 직장인들이 많고 특히 아이티 직종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많은 편이다. 타주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계속 한인들이 오고 있는데 EM권 한인 2세들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

고 있다.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팬데믹 중에 담임으로 부임하게 됐는데 목회 시작부터 어려움은 없었나.

어스틴한인장로교회는 연령대로 볼 때 어르신도 많은 교회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짠했다. 부임하자마자 문고리 심방을 했다. 평생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했는데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니깐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신 상황인지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찾아 보았다.

너무 반가워하셨고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셨다. 팬데믹이 지나가면 이런 부모님 같은 분들이 사역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은퇴를 하셨어도 여전히 활동적인 분들이 계시니 시니어 사역을 잘 열어드리면 좋은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고 본다.

청빙 이후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대면으로 100% 다 모일 수가 없어서 아직 인사를 못 드린 성도들도 계

시다. 그 점이 성도들에게 죄송하다. 그 동안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방법들로 인사는 드려왔지만 전체가 다 모인 가운데 뵙지는 못했다. 다른 목회적인 어려움은 팬데믹 가운데 다른 교회들도 모두 겪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다만 목회 1년 차인 저를 위해 교회의 중직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협력해주고 계신다. 그 부분이 정말 감사하다.

저는 청빙 과정에서 진솔하게 제 말씀을 드렸다. 제 자신도 100점 목회를 하겠다고 장담할 수 없고 분명히 실수도 나올텐데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솔직하게 부족함을 인정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서로 너무 완벽하려고 부담을 갖거나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다. 저는 리더십은 완성된 상태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성장을 해나간다고 생각한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5년3개월간 부목사로 섬긴 것이 큰 도움이 됐고 저 자신도 그 사이에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신학공부 또한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부족한 것을 느꼈다. 공부

하면서 더 겸손해졌다.

-전통있는 한인교회를 첫 담임 목회자로 맡았는데 지난 1년간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회를 해 나가고 있는가.

거창하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의 목회철학과 계획이 있다. 아마 지난 부목사 시절 하나님께서 철철하게 하신 듯하다. 원래는 앞으로만 직진하던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주변도 좀 볼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여유를 그곳에 있는 동안 배우게 됐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어스틴한인장로교회를 연결해 주실 때 첫 담임목회에 대한 부담이 컸다. 하지만 목회 비전을 생각했을 때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줄 곳 해 왔던 이 산책이 제 목회비전과 연결된다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예수 산책’이란 것은 화려하고 거창한 것은 아니고 다만 빠르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 너무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대니까 교회에서는 한 번쯤 느릿느릿, 산책하는 듯이 여유를 갖고 주변과 뒤를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서 나온 것이다.

- ‘예수 산책’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예수 산책’에는 큰 세 가지 비전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말씀 공동체, 두 번째가 제자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이 미셔널 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이 시대에 다양한 우리 삶의 원천들이 있었지만 역시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목회를 하자고 생각했다. 말씀으로 인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선교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주셨다.

이 ‘산책’의 여러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책’이라는 의미의 ‘산책’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말씀공동체랑 연결된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길 걸으면서 대화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산책’이신 예수님과 함께 말 그대로 함께 산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책’이 먼저 되어야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책’으로서의 미셔널 공동체를 이뤄가고 ‘지역과 세계열방을 품는 선교’,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는 선교’,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해나가 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걷는다. 하지만 어떤 길을 걷는가, 또 누구와 길을 걷는가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 주신 길이 있고 이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닦아 놓으신 길이요,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길이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 ‘예수 산책’을 통해 강조하고 싶다. 김대원 기자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34년간 사고합성시 현역주신 현직전문지 달려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싸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리스팅 전문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케를리**  
ONE #168888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서장  
Carole Lee Realtor  
Cell 714.345.4989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원 목사(편저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복벽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한교총 “기독교 가치관에 부합한 대통령 후보 선택해야”

### “반드시 투표하되, 각자 선택 존중” 요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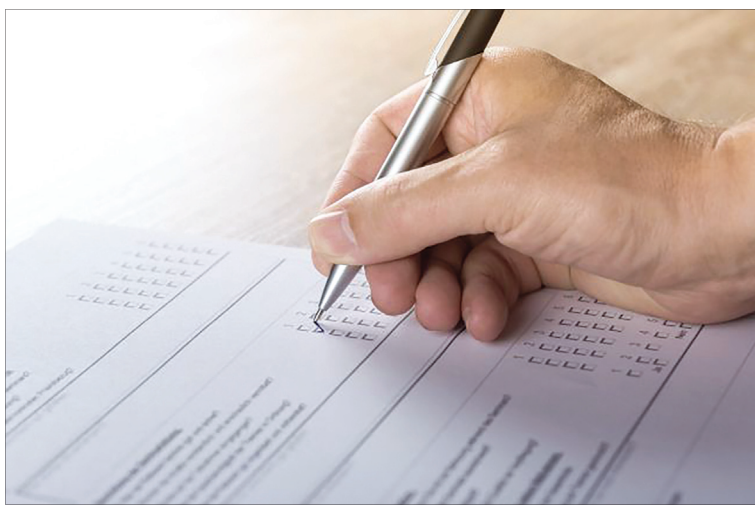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성도들이 투표에 참여하자고 독려했다.

한교총은 15일 “그동안 각 정당 후보들이 보여준 모습은 마치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물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며 “과연 누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가를 분별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대통령 직접선거는 대한민

국 민주주의 발전의 위대한 성과”라며 “모든 교인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으로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먼저 기독교적 가치관에 부합한 정부가 구성되도록 선택할 것을 요청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애국계몽운동,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전과 복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가 되기를 기도해 왔다. 기독교적 가치관은 어떤 이념보다도 완전한 삶의 지표”라며 “창조 질서에 따라 모든 인간의 존엄과 공정, 상호 이해와 협력,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을 추구하는 후보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시행된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pixabay

둘째로 5년 후를 바라보는 지혜로 지도자를 선택할 것을 요청하며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5년 후 국민의 삶을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며, 다음 세대

의 꿈과 역량을 극대화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임기를 마칠 때 ‘국민을 통합한 대통령’, ‘통일의 길을 열어놓은 대통령’,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조국을 이끈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아쉬움의

감동과 감사의 박수를 받는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교인 각자의 선택을 서로 존중할 것을 요청하며 “지역교회나 단체가 특정 후보의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의 정치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교인은 참정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각자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나 기관, 연합단체의 직접적인 정치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교회와 복음의 순전성을 해치게 된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는 교인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 한국 기하성 소속, 부교역자들이 담임목사 부부 비리 폭로



지난해 A집사 사기 사건 관련 보도. ©SBS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 집사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기하성 소속 순복음00교회에서, 담임목사 부부에 대한 부교역자들의 폭로도 터져나왔다.

교회 전·현직 교역자들인 폭로자들은 ‘기하성 교단의 목회자님들께 호소드립니다’라는 60여 쪽의 문건에서 담임목사에 대해 △교역자들에 대한 갑질과 폭언 △금품 요구 △골프 접대 △

여행과 쇼핑에서 선물 요구 △문서선교센터 갑질 △비서실 교역자들에 대한 횡포 △A 집사 허위 출교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00 목사 부임 후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이대로 가면 교회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위험에 처할 것이기에, 하루빨리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잘못을 바로잡고 교

회가 정상화되도록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최00 목사는 교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자격이 정지됐음에도, 목회자로서는 할 수 없는 불법적 일들을 교역자들에게 지시하거나, 불법 소집명령 등을 여전히 하고 있다”며 “최근 불법 인사명령을 내려 장로들이 분열해 싸움이 일어나도록 조장하고 있다. 교회 총무국 출입문 장치를 파손하고 용역을 동원해 장

### “갑질과 금품수수 의혹, 교회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

기간 점거, 직원들 출근과 업무, 헌금수전, 예산집행 등이 마비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 모든 업무가 마비됐다. 총무국 점거로 수전실이 폐쇄돼 헌금수전, 헌금 계수가 불가능해 소중한 헌금이 계수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면서 “최 목사는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사용하는 통장(체크카드)과 인감을 분실 신고한 후 재발급을 시도하는 등 상상 못할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현재 A 집사의 사기 방조, B 장로에게 이영훈 목사 고발 사주, 부교역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하성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회부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논란이 커지자, 최 목사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교역자들이 제기한 저와 제 가족들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며 “그들의 글 중 맞는 부분도 틀린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는 사죄 말씀만 올리겠다”고 밝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 세대는 제자로서 원로목사님을 성심껏 모셨기에 선부 존중의 관행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교역자들과 함께한 것이지만, 지금은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시대가 바뀌고 관점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총무국 경비 시행과 교회 카드 교체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 비용지출 등 총무국 불법사용을 대비한 것이었지, 돈을 인출해 법인을 설립하고 비전센터를 팔려 했다는 항간의 참소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담당 장로에 대한 진정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형사문제가 될 만큼 심각해 교회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카드를 변경했다”며 “교단에서 파송한 치리 목사는 파송 절차에 문제가 있어 적법하지 않고, 인사권 행사도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송경호 기자

기독교일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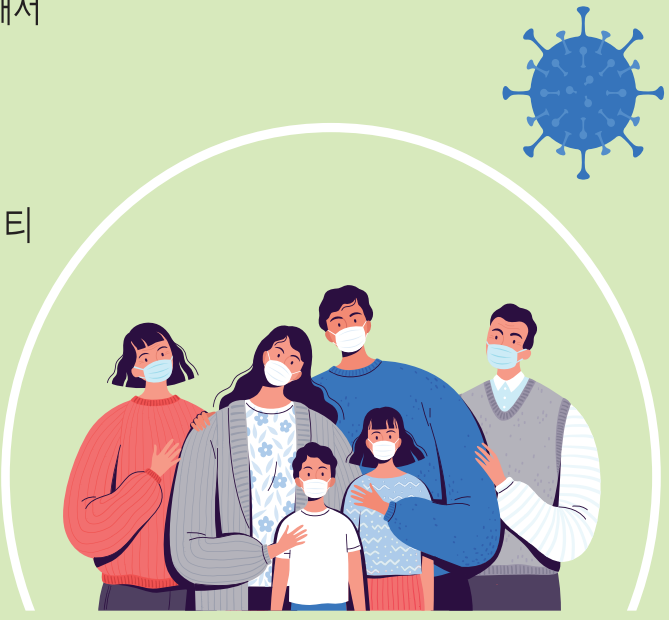
#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교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교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의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www.LASarang.com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명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자세례예)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격려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교동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주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로 새을 쌓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교동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25 수요일성경말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B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교동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지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초를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말씀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금요일(아도회/가정학) 오후 8:00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아도회/가정학)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com

##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명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줄 같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 미 백인 복음주의 과반수, 불법 이민자 시민권 '반대'



2021년 10월 멕시코 남부에서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다. ©NBC뉴스 보도화면 캡처

미국 공공 종교연구소(PRI)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서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이 불법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에 가장 반대하는 종교 집단으로 나타났다.

3일 발표된 '미국 거주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 지지'에 관한 조사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토대로 작성됐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불법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지지하고(62%)고 이민자가 미국 사회를 강화한다고 믿었지만(56%) 이민을 중대한 문제로 보는 응답자는 44%에 불과했다.

그 결과,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47%)을 제외한 종교 단체의 대다수가 "불법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종교 집단 중에서 흑인 개신교인(75%)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히스패닉 가톨릭(70%), 무교 미국인(69%), 기타 기독교인(65%), 백인 주류 개신교인(59%), 비기독교인(55%), 백인 가톨릭 교인(54%) 순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백인 주류 개신교인(66%)과 백인 가톨릭 교인(57%)의 경우, 과반수가 불법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지지했다.

이민에 관한 주제는 복음주의자(53%)를 비롯한 백인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 가톨릭 교인(57%)과 개신교인(54%)은 이민을 중요한 문제라고 여

겼지만, 무교 미국인은 3분의 1 이하(32%)가 이민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다.

설문 조사는 이민을 중대한 문제로 보는 응답자들에게 '특정 요건을 충족한 불법 이민자의 시민권 허용'과 '미성년기에 밀입국한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용' 할지 여부를 물었다.

이민을 중요한 문제로 평가한 그룹은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민주당, 공화당 및 무소속 등 총 4곳이었다.

이 중 백인 복음주의자의 34%는 '불법 이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했고, 10명 중 4명(41%)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에 대해 찬성했다.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불법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지지하는 비율은 흑인 개신교인(70→75%), 비종교인(64→69%), 기타 기독교인(63→65%) 사이에서 증가했다.

반면 같은 시기에 히스패닉 가톨릭 교인(74→70%), 백인 주류 개신교인(61→59%), 비기독교인(68→58%), 백인 복음주의자(56→47%)로 지지율은 줄었다.

이민자의 증가가 미국을 강화할 것이라는 응답 또한 감소했다. 백인 복음주의자의 경우 2011년 38%에서 2021년 35%로 줄었고, 같은 기간 백인 주류 개신교인(48→46%), 백인 가톨릭 교인(56→46%)도 감소세를 보였다.

김유진 기자

# 미 버지니아주, 학부모에 '성적 콘텐츠' 고지 의무화 법안 통과



©Unsplash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은 학교 측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 SB 656은 주 교육부에 공립학교를 위한 정책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라는 문구에 대한 정의는 이미 주법에 기록된 대로 사용하며, 부모가 교육 내용에 반대할 경우 자녀에게 '비명시적 교육 자료'와 '관련 학업 활동'이 제공된다.

이 법안은 주 상원에서 20대 18로 통과했으며, 현재 주 하원으로 넘어갔다. 2명의 민주당원인 린우드 루이스 상원의원과 몬티 메이슨 상원의원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 법안의 통과가 보장됐다. 글렌 영킨 주지

사 역시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법안이 승인되면 교육위원회는 2023년 1월 1일까지 새 법을 시행하고, 교육부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공화당 의원이자 법안 후원자인 빌 데스테프 상원의원은 "나의 목표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더 많은(교육)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어떤 것도 금지하거나 태우려는 게 아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은 보아도 괜찮다'고 말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법안의 내용은 공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도서의 검열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던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안 제정은 2020년 공화당 글렌 영킨과 민주당 출신 테리 맥콜리프가 나선 주지사 선거의 핵심 이슈였다.

강혜진 기자





# 우크라이나 기독교계 “우리의 사명 변함 없어...두려워하지 말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기독교 사역자들이 “우리의 사명은 변함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며 전국의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78%가 우크라이나정교회, 10%가 로마 가톨릭, 2%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위치한 키예프신학교(Kyiv Theological Seminary)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적었다.

키예프신학교는 폭탄 테러 우려로 지하철에 대피해 있는 키예프 시민들을 위해 식료품을 포장하고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키예프신학교는 “적시에 대피소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으자. 두려움이 우리를 지

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주님을 신뢰하고, 당황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덧붙였다.

키예프신학교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위해, ‘원수’(the enemy)가 범죄를 멈추고 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교회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기도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침례교 연합(Ukrainian Baptist Union) 발레리 안토뉴크 회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시편 23편을 인용해 “전쟁 시 기도는 우리의 무기”라며 전 세계에 기도를 요청했다.

남부 해안 도시 오데사에 위치한 기독교 방송국 ‘뉴 라이프 크리스천 라디오’(New Life Christian Radio)는 해당 지역에 러시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동부 지역 하르코프광장에서 기도하고 있다. ©CNN 보도화면 캡처

아군이 주둔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에 직원들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최소한의 직원들이 군대에 의해 저지될 때까지 그곳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뉴라이프크리스천라디오

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민 모두가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게 된 우리 구세주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방송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역과 러시아에 기독교 방송을 송출하

며, FM 주파수와 위성 및 인터넷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는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이 구소련 하에서 그들이 겪었던 박해를 잊지 않고 계속 복음을 나누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 중 가정교회 목사, ‘복음전파 사기’ 혐의로 징역 8년형 선고 받아

중국 후베이성 법원은 개신교 교회를 규제하는 국가통제기관 가입을 거부한 가정교회 여성 목회자를 복음전파 사기 혐의로 8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UCA뉴스를 인용해 어저우 어청 구 인민법원이 최근 어저우 시 예정차오 교회의 하오 즈웨이 목사(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즈웨이 목사는 개신교 삼자에 국운동위원회와 기독교협의회 승인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변호인 스웨이장이 밝혔다.

스웨이장 변호사는 “2019년 7월에 체포된 하오 목사는 사기 사건에 연루된 중국 내 최초의 가정교회 목사”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 박해감시단체 ‘처치 인체인’(Church in Chains)이 전했다.

이 단체는 “하오 목사의 교회 건물은 지난 2019년 8월 철거되었으며 지속적인 박해에 직면해



중국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이 과거 기도회에 참석했던 모습.(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차이나에이드 제공

있다”라며 “목사가 체포된 후 당국은 같은 혐의로 구이양 럼하이개척교회의 장춘레이 장로와 하오밍 장로, 이른비침카오디교회 우지아나를 포함해 여러 가정교회 목사들을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은 2018년 발효된 새로운 종교행위에 관한

규제법(Regulation on Religious Affairs)을 사용해 가정교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박해한다고 청두 이른비언약교회의 리잉창 장로가 지난해 11월 밝혔다.

박해 방법에는 ‘중국화’가 포함되며 십자가와 교회 건물을 철거하거나 교회 헌금을 금지

하는 등 기독교를 중국 문화, 종교, 정치 이념에 맞추려는 시도가 포함된다.

리 장로는 “기타 혐의에는 ‘불법 사업 운영’, ‘국가 권력 전복 선동’, ‘싸움선동 및 소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난은 충성스러운 설교자의 머리에 박힌 가시이며 충성스러운 종들을 위한 하나님의 면류관”이라고 덧붙였다.

하오 목사의 아들인 중학생 모세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미국에 기반을 둔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CC)가 전했다.

ICC는 “하오 목사의 남편은 몇 년 전 사망하고 큰아들이 2020

년 대학을 입학해 더 이상 동생들을 돌볼 수 없게 됐다. 모세는 이번 학기 자퇴하고 방에 갇혀 지냈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전했다.

하오 목사는 감옥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상당한 체중 감량을 겪었다고 ICC는 전했다. 이 단체는 “(하오 목사가) 2년 넘게 구금된 후 급성 췌장염에 4번이나 걸려 응급실로 실려갔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밝혔다.

하오 목사는 무죄로 석방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ICC는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 LA office/Showroom

# 리모|델|링 전문

###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오픈기념 세일**

단독주택에 **ADU**

**Second Unit** 건축

**Water Damage**

보수공사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ucco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2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전적상담

**LA (213)500-8000** 3400 W Olympic Blvd., #204, L.A, CA 90019 (구, 로랜드 빌딩)

**OC (714)294-4336** 8251 Roland St., #E,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 헌신은 기쁨을 낳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 15:11). 바울도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 문제는 우리가 기쁨을 원하지만 기쁨을 억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싶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일까?” 각자의 생애를 돌아켜 보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때에 기뻐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아주 어릴 적 경험도 좋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기억해냄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기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언제 기뻐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도 추위를 땀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따뜻한 햇살 아래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고요한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기쁨에 대한 추억을 우리 안에서 끌어

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억은 주로 충격적인 사건, 상처 받은 사건, 고통스런 사건을 기억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보다 고통스런 순간들을 더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행복에 젖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춤추고 싶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인생의 무게 때문에 기쁨의 기억을 억누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셀름 그뤼은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기쁨의 기억을 생각해냄으로 내면에 있는 ‘기쁨의 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기쁨의 기억을 제 기억 속에서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 나름대로 고난과 역경을 많이 통과한 까닭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제 기억을 추적하는 중에 기쁨의 순간들을 기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오대원 목사님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기억한다는 것은 다시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과거의 아름다운 경험을 오늘 다시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소원한 것을 성취했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산책할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좋은 만남을 가졌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어

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아름다운 일을 성취했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배우고 성장할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다양한 기쁨 중에, 제가 나누고 싶은 기쁨은 헌신의 기쁨입니다. 헌신의 기쁨을 깨닫기 위해서는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알아야 합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단 1:8). 헌신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 전심을 다하고 온몸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의 헌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까닭에 헌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헌신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헌신하면 용맹을 발하게 됩니다.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키우면 용감한 여인이 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과 헌신 때문입니다. 헌신은 능력을 낳습니다. 헌신의 능력은 비전의 능력입

니다. 비전을 품게 되면 헌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비전을 품었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헌신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 낚는 비전을 품었을 때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헌신을 했습니다(마 4:19-20). 사명을 품게 되면 헌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행 20:24).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한 까닭에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시는 헌신을 하셨습니다.

헌신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기쁨이란 우리가 집착한다고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면에 있는 ‘기쁨의 샘’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기도, 전도, 제자양육, 선교, 봉사, 자녀 교육, 구제 등 선한 일에 헌신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헌신은 능력과 기쁨을 낳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는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 연재 '굽추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동죽선교  
박성원 목사

“옥이는 책임지고 아낙네들을 모아 기도회를 상징하는 깃발을 만들어라.”

“광이는 먹물깨나 먹었으니 기도회의 강령을 작성하라.”

“나머지는 기도회를 위해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그리고는 나부터 무릎사이로 머리를 처박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명령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시 무르지 못한다고 명령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중 자기 목숨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

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진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며 우리가 드리는 중성심대로 판결하여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소견에 좋을 대로 처리 하옵소서. 아멘.”

내 기도를 옆에서 듣고 있던 동료가 내 옆구리를 치며 말했다.

“자네는 왜 자꾸 죽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아닌가? 사랑의 본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기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네의 세 치도

안 되는 혀를 놀려 독재자와 같은 살인자로 만들지 말게.”

그런데 그의 충고가 웬지 고깝게 여겨졌다.

‘이 종간나 새끼, 기도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나를 책임자로 세울 때는 언제고 죽는다니까 겁나는 모양이군. 이렇게 겁이 많으니 계집애만 줄줄이 셋이나 낳지.’

그런데 우습게도 나 역시 딸만 둘씩이나 낳은 아버지였다. 갑자기 혼자 우스워서 키득거리니까 그가 영문을 몰라 왜 웃느냐고 묻는 것이다.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는 “하나님의 일은 용감함으로 하는 게 아니야” 했다.

그런데 그때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도 없으면서 번지르르한 말로 자신의 비겁함을 포장하는 겁쟁이로만 여겨졌다. 그런데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은 나 자신의 용감함이나 굳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다. 죽어 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열심히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다. 당시 나는 그만큼 교만했고 어리석었다.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다양한 기독교정보

# 기독교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교일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 신문 GO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녘맞춤/명품웃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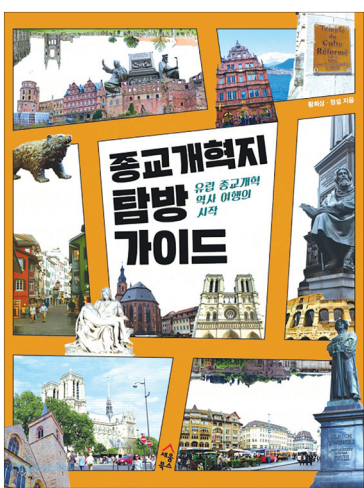
문의 1-877-580-2424 **새우수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samsungmoving@gmail.com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책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 유럽 6개국 20개 도시 중심으로 소개

“종교개혁지 탐방,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볼 것인가?”



황희상, 정설  
세움북스 | 332쪽

종교개혁지 탐방의 WHY, WHAT, HOW!

하나님의 존재와 숨결이 숨쉬는 역사의 현장을 '가서! 경험하라!'

몇년 전 '종교개혁지 탐방' 여행 상품이 교계에 유행한 적이 있다. 기존에는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스라엘, 터키, 레바논 등을 다녀오는 상품은 많았지만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자 눈치 빠른 여행사들이 관련 상품을 만들어 판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의 문제는, 갑자기 생긴 수요에 맞추다 보니 콘텐츠가 따라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행 상품 일정에 막상 중요한 종교개혁지가 빠지거나, 종교개혁 역사 중 초기에 해당하는 도시만 보다 온다거나 하는 식이다. 종교개혁 관련 지식을 갖추고 교회사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줄 가이드를 찾기 어려운 점도 있다.

위와 같은 아쉬움을 보완하고자, 종교개혁지 탐방을 꿈꾸는 이들에게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책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가 출간됐다. 책은 유럽 6개국 20개 도시를 중심으로 탐방할 수 있는 종교개혁지를 소개했다. 책의 저자는 황희상(남편) 정설(아내) 부부. 이들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동기로, 기독교잡지 편집장과 기자로 사이좋게 활동했다. 남편은 '특강 종교개혁사' '특강 소외리문답'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등 종교개혁 관련 책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하다.

저자 부부는 2003년 8월 첫 유럽 여행을 시작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유럽을 돌며 주로 종교개혁지를 답사했다고 한다. 이들

은 자신들의 경험을 탐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소개하고 싶어 책을 출간했다. 책은 종교개혁지를 탐방할 때 장소를 왜(WHY) 가는지, 가서 무엇을(WHAT) 보고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어떻게(HOW) 접근하고 돌아보면 좋을지를 소개했다.

각 탐방지 소개에 앞서 책은 '탐방을 위한 일곱 가지 꿀팁'을 소개한다. 첫번째는 일정기간 종교개혁사를 공부한 멤버만 참여하기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루터가 누군지 칼뱅이 누군지 설명하느라 시간을 다 쓰기 때문이다. 그외에도 ▲가능한 15인 소그룹으로 이동 ▲현지 투어 가이드의 해설은 줄이고 전문 해설사 동반하기 ▲전문 인솔자 활용하기 ▲기존 동선에 꼭 가고 싶은 여행지 반영하기 ▲예약 필요없는 곳도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기 ▲숙소 식사 비용 줄이더라도 콘텐츠에 투자할 것 등을 꼽았다.

종교개혁지 탐방을 떠날 때가 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어디로 갈 것인지'이다. 종교개혁은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것이기에, 다 가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경중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탈리아/체코·독일/프랑스·스위스/영국 이렇게 네 지역으로 나눠 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1. 이탈리아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교개혁

지 답사인데 왜 이탈리아에 가야 하나? 거기에 무슨 종교개혁이 있었다고...”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저자는 이탈리아를 권하는 이유로 “이탈리아를 봐야 종교개혁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 체코/독일  
이 두 곳은 초기 종교개혁과 관련한 지역이다. 안 후스가 활동했던 체코와 마르틴 루터가 활동한 독일 지역은 종교개혁의 모판과도 같은 곳이다.

3. 프랑스/스위스  
루터 이후 칼뱅을 중심으로 한 개혁과 종교개혁이 활발했던 지역. 저자들은 “기존 종교개혁지 답사 상품들은 주로 루터에게 집중해서 독일 지역을 돌아다니지만, 프랑스와 스위스가 종교개혁지 탐방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다.

4. 영국  
영국은 유럽 대륙과 물리적으로

로 떨어져 있어 동선 잡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답사 코스에서 배제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최대 교파가 장로교회이고 장로교회를 탄생시킨 곳이 스코틀랜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영국은 빼놓아 빠질 수 없는 답사 지역”이라고 말한다. 여행 자체로도 매력적이고, 좀 더 심화된 답사 경험을 할 수 있다고도 덧붙인다.

책에서 저자가 샘플로 제시하는 동선은 위 사진과 같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 영국 런던으로 나오는 11박 12일 코스다. 이 코스는 종교개혁의 역사에 따른 시간 순서로 짠 코스다. 저자는 “정해진 샘플 동선 외에 시간적 여유가 더 있는 경우 파리나 에든버러, 런던 중에서 하루 이틀씩 더 늘리면 되고, 파리에서 기차를 이용해 라로셀을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것도 멋진 경험”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연 기자



저자가 추천하는 11박 12일 코스. ©세움북스 제공

[신간] 존 비비어의 은사

두란노서원이 존 비비어 대표(메신저 인터내셔널)의 신간 <존 비비어의 은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은사에 대해 궁금한 이들을 위해 저자는 주어진 은사와 그 은사를 개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집필했다.

저자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은사를 배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지금 하는 일이 나의 은사와 맞는 걸까?’ 등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사를 숨겨두셨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길 바라신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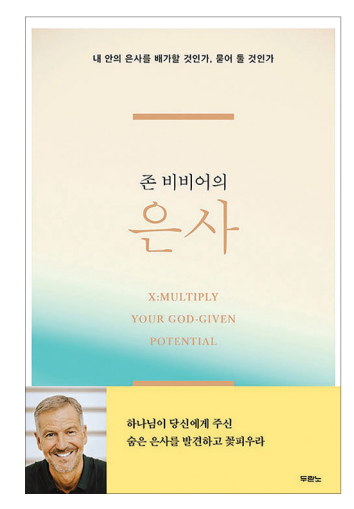
그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은사를 바라보며 가야 한다. 또한, 성경을 통찰과 영감으로 살펴 그 속에 숨긴 뜻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단순히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은사를 발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을 선하게 바꾸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인생의 목적을 찾아 해매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슬픈 사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 멈춰서 있다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이를 극복할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한편, 존 비비어 대표는 강연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탁월한 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1979년 퍼듀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을 전공할 당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그때부터 캠퍼스 전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1990년 그의 아내 리사와 함께 ‘메신저 인터내셔널(Messenger International)’을 설립하며 미국, 호주, 영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이 단체는 지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과 언어를 뛰어넘어 다양한 사역자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여러 자원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순종>, <열정>, <존중>, <끈질김>, <성령님>, <결혼>, <무엇이 선인가>, <영적



무기력 깨기), <광야에서>, <구원> 등이 있다. 최승연 기자

Advertisement for David S. Lim Law Offices. Features a portrait of David S. Lim, a list of services (Investor/Immigration, Employment/Immigration, etc.), contact information (213.251.5554), and website (www.davidlimlaw.com).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킹메이커> (2)

대선 앞두고... '절반의 현실' 반영한 영화, <킹메이커>

목적보다 절차 앞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공학 선거, '이해와 욕망 표출 방안' 전략한 지 오래 민주주의 이상, 송고했지만 현실적이진 못해 엄창록 조종, 민주주의 정치 현실 민낯 보여줘

◆자유민주주의의 구조: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과 오늘날의 삼권분립

몽테스키외(Baron de Montesquieu, 1689-1755)는 미국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탄생한 자유민주주의의 선구자 중 하나로, 세계사나 정치 교과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을 정교하게 다듬은 공로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구체적 구조와 절차를 제안한 것으로 더 유명하다.

그는 궁극적으로 최대한 많은 민중이 정치적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체제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몽테스키외는 이상과 현실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 또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엘리트 계층에 속한 인물이었다. 남작 작위와 봉토를 갖고 있었고 부유한 귀족가문 아내를 얻었으며 보르도 지방법원 원장에 취임하기도 했다.

그는 당대의 민중 대다수가 글자조차 깨우치지 못한 무지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현실을 고려해서, 단순한 직접민주제로는 민주정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의회는 당대의 지식층이자 기독교인 귀족에게, 행정부는 최고권력자인 국왕에게 맡기고, 양측이 협력해 이루어지는 법 집행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시민들에게 맡기자는 삼권분립설을 제안했다.

입법과 행정 기능은 기존의 엘리트 계층에게 맡기고, 대신 양측에 부여된 권력이 특정 계층만을 위해 전횡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힘을 일반 국민들에게 위임하자는 것이었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설은 프랑스 구체제 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국과 프랑스의 민주주의 혁명 이후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이루어

진 의회와 행정수반, 그리고 양측의 협의에 의해 임명된 판사들로 이루어진 사법부 사이의 상호감시와 견제라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수많은 나라들의 정치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

즉 민중의 정치개입을 사법부만 제한하려 했던 원래 삼권분립설의 의도와 달리, 민주주의 혁명 이후의 삼권분립설은 세 개의 정치기구 모두에 민의를 적극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몽테스키외가 만약 오늘날 삼권분립설이 적용되는 방식을 목격했다면, 동기가 아닌 우려를 표명했을지도 모른다.

몽테스키외는 민중의 양심과 시민의식이 이상적인 수준으로 올라서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력의 세 핵심 기구 모두가 민의에 휘둘리면 삶의 안정과 번영 대신 분쟁과 퇴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우려는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하는 여러 국가들의 삶의 현실 속에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절차: 정치공학의 주요 수단으로 전략한 선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몽테스키외 당시의 프랑스에 비해 시민들의 지식수준이나 정치의식이 비교도 할 수 없이 높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는 현대 공교육 시스템과 발전된 미디어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양심과 시민의식의 고양은 생각보다 훨씬 더디다.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지식 측면의 성장은 빠르지만, 의지 측면의 성장은 더디다 못해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쉽게 말해 민주주의 이념과 절차적 원리를 알아도 그에 부합하게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선거 참모였던 엄창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킹메이커>.

는 당연한 일이다. 인류가 본원적으로 품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 인간 스스로의 선의지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며, 그 한계의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

다수를 위한 민주적 윤리와 개인의 이기적 욕망이 서로 충돌할 때 거의 대다수의 민중은 우선 후자를 추구한다. 이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사라지고, 그 절차만 남아 욕망의 도구로 활용되게 된다.

선거도 이처럼 개인 혹은 집단의 이해와 욕망의 표출 방법으로 전략한 지 오래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조차도 극복하지 못한 현실이다. 계몽주의가 그려낸 민주주의의 이상은 송고했지만 현실적이지 못했다.

영화 <킹메이커>는 이런 점에서 반쯤은 현실적이고, 반쯤은 비현실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거전략가 엄창록이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를 정치공학적으로 조종하는 장면들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적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엄창록에게 도덕적으로 흠없는 선거운동 진행을 요구하고 그와 격하게 대립하는 장면은 감독의 이상이 가미된 허구일 뿐이다.

실제 역사에서 엄창록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결별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1971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중앙정

보부가 엄창록을 납치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해 강제로 일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속설이 가장 유력한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의 도덕성을 두고 김대중 후보와 참모인 엄창록이 격하게 대립한 일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당시 김대중 후보가 개인의 영달과 권력의 전횡만을 추구하는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다. 만일 그랬다면 그가 이후의 한국 정치사에 그만한 공로와 업적을 남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 김대중 후보가 완벽한 성인군자인 것도 아니었다. 엄창록의 선거전략이 다소간 편법적이라도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당시 김대중 후보가 자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치 참모를 지탄하고 내칠 정도로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애초 그 정도로 완벽한 도덕성을 갖춘 인물은 정치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기 어렵다. 많은 이해 충돌을 완화해 가며 다수의 욕망을 적절하게 만족시켜주는 일은 성인군자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춘추시대 제나라를 패권국으로 올려놓은 명제상 관중은 자신이 죽을 때 후임으로 절친한 벗이자 도덕적으로 고결했던 포숙을 추천하지 않았다.

제한공은 포숙을 재상으로 삼으려 했으나, 관중은 포숙의 도

덕적 고결함이 당시 제나라 정치현실 속에 큰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것임을 알고서 제한공을 만류했던 것이다. 관중이 이 때 남긴 말이 "수지청즉무어(水之淸則無魚)," 즉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는 격언이다.

이는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선거 현실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몽테스키외가 우려했던 것처럼 민의가 좌우하는 삼권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삼권에 민의가 직접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결정적 방편인 선거 역시 교활한 정치공학의 주요 수단으로 전략한 지 오래다.

민주주의의 세부 절차를 신봉한 나머지 그 원래 목적인 천부인권, 행복 추구의 자유,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 정치계의 현실인 듯하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인 입장에서 선거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만일 요즘과 같은 대선 국면에서 교회가 선거에 깊이 관여하면 할수록 위정자들과 대중의 정치적 욕망에 휘둘리고 이용당할 뿐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앙인 개개인은 정교분리의 신앙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가운데, 단지 현실적으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한다는 심정으로 투표에 참가하는 것이 온당한 일로 여겨진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관리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Tel: 213-739-1022



www.openstewardship.com

# 우리 함께 - 손잡아요!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한인사회를 비롯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중인 현 프로그램 활성화와 확장을 Open Stewardship Foundation 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오픈청지기재단 수혜단체 공지

### 2021 OPEN STEWARDSHIP PROGRAM RECIPIENTS LIST

- ABC Unified School District Education Foundation
- All Nations Church Growing-Up Reading Clinic
- American Wheat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Inc.
- Asian American Job Training Center
- Cal G.I.V.E. Foundation
- Christian Counseling Services
- Circle of Friends in Love
- City of Refuge Mission Center
- Communities Actively Living Independent & Free
- Divorce Recovery Ministry, Inc.
- Edenhurst Community Center
- East Bay Korean-American Senior Service Center
- Family Saver Center
- Good Hands Foundation
- Good Neighbors USA
- Grace Community Service
- Hanmi Family Counseling Center
- Happy Village- The Korea Daily
- Hope Sight Mission Association
- Hyosarangus Mission
- IATIA Cherish Mission
- Intellichoice
- Jesus Love World Mission
- KOA Dance Federation
- Koinonia Mission
- Korean American Coalition
-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ices, Inc.
- Korean American Dementia Center
-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Inc. (KFAM)
-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Inc. (KAFLA)
- Korean American Senior Citizen League of Santa Clara
-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KAWA)
- Korea Town Senior and Community Center
-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Inc. (KYCC)
- L.A. Mom and Dad Mission
- Love In Music
- Mental Health Family Mission
- Micah Healing Ministry
- Pacific American Volunteer Association (PAVA World)
- Shalom Center for T.R.E.E. of Life
- Shalom Life Line
- Siloam Healing Mission Center
- Somang Society
- South Bay Ko-Am Senior Center, Inc.
- Street Company
- The Angeles Dream Foundation
- The Well Mission
- Vision Care Service West
- Watered Garden Mission for the Physcially Challenged
- Youstar Foundation (K Town Hope, Inc)
- 3C Medical Clinic
- Accompany Worldwide
- EIS Family A38
- Father's Table Mission
- Fristers
- Korean American Seniors Association of OC
- LNC (Love & Care) Foundation
- Onesimus Jail and Prison Ministry
-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for the Deaf
- This Ability Orchestra Foundation
- Texas Milal Mission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